

#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

Daejeon National Cemetery

VOL. 136

연중 누구나  
자유롭게 참배하고  
나라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보훈의 성지

04  
APRIL

- 📄 웹진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 ▶ 영상 국립대전현충원 유튜브
- 📘 카드뉴스 국립대전현충원 페이스북

국립대전현충원 충혼지

★ 국립대전현충원 소식을 웹진·영상·카드뉴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보훈현충뉴스

황기철 국가보훈처 서해수호 계기  
참전장병 간담회 실시

이달의 현충인물  
한성수 순국선열

서해수호의 날 계기  
추모 연주행사

공모전 입상작  
대전현충원을 찾아서  
(덕인고등학교 전대진)

## 보훈현충뉴스

### ：報勳顯忠

####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해수호 계기 참전장병 간담회 실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3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전 장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국가보훈처장은 서해수호 55용사의 묘역을 찾아 헌화 및 참배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졌다.



4월

#### ● 이달의 현충인물 선정패 증정식 개최

국립대전현충원은 3월 4일 이달의 현충인물로 선정된 '홍준옥 애국지사'의 유가족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선정패 증정식을 가졌다.

3월의 현충인물인 독립유공자 홍준옥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해 주동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1920년 7월 5일 고등 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1묘역 제2호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광복군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 한성수 순국선열

：顯忠人物

“

나는 한국인이다.

너희들은 일본어를 국어라 하지만

나의 국어는 아니고 원수의 말이다.

나의 국어는 오직 한국말일 뿐이다.

：

일본은 이번 전쟁에서 기필코 패전하고야 만다.

미·영·중·소 등 연합국의 합동작전으로

태평양 방면은 물론 인면(印緬, 인도 미얀마) 전선과  
중국전선에서 참패하고 머지않아 무조건 참패할 것이다.

그때 가서는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며, 한국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무수히 희생을 당한 것과 같은 고초를 침략자인

너희들도 당하고 말 것이다.

선생의 군법회의 법정 진술 중에서(1945. 3)

”



한성수 순국선열(1920~1945)



독립유공자 제1묘역 제292호

국립대전현충원 4월의 현충인물로 선정된 ‘한성수 순국선열’은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초모 및 정보공작 활동을 하고, 1944년부터는 상해지구특파공작조장으로 항일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다.

한성수 선생은 1920년생으로 평북 신의주(新義州) 사람이다. 선생은 일제의 강제 징집된 학도병으로서 중국 서주에 배속된 후 일찍부터 계획하고 있던 탈출을 감행했다.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한 선생은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1944년 11월 화남지역(華南地域) 공작책으로 임명을 받은 한성수 선생은 주로 상해

(上海)를 중심으로 적의 엄중한 감시를 피해 무전통신 작전을 수행하고, 초모공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생의 상해 파견은 자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군을 탈출한 3월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적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다.

1945년 배반자의 밀고로 피체된 한성수 순국선열은 사형을 언도받고 1945년 5월 13일 남경(南京) 형무소에서 참수형(斬首刑)으로 순국하셨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01

##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2·8 독립선언부터  
상해 임시정부 수립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은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일어난 2·8독립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이 2·8독립선언은 당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서울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진행하며 지식인과 학생,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기존의 지식인과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던 독립운동이 3·1운동을 계기로 대중으로 확대되면서 독립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했다. 3·1운동 이후 거세진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했으며, 상해로 모인 독립투사들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후



02



03

01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 축하회  
(출처: 독립기념관)

02 2·8독립선언서(출처: 독립기념관)

03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한 태극기

국내외 독립운동을 관할하며,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다.

또한 외교 활동으로 세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오늘의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선열들이 피와 땀과 목숨까지 다 내어주며, 조국을 지켜냈기 때문임을 기억하자.



## 독립유공자 안장식 하희옥 선생

| 1890~1978 |

지난 3월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하희옥 선생의 안장식이 거행됐다.

하희옥 선생은 1980년 평안남도 용강 출생으로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대한민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아크론, 뉴욕, 시카고 지방회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

2015년 대통령 표창 추서 당시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 전수 및 선생의 묘소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원묘지에 하희옥 선생이 안장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후손을 찾는 일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후손을 통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셨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후손 찾기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독립유공자 안장식 한일봉 선생

| 1906~1967 |

지난 3월 2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 한일봉 선생의 안장식이 엄수됐다.

한일봉 선생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비밀 결사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이른바 전북교원적화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시대에 굴하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친 한일봉 선생에게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서해수호의 날 계기 추모 연주행사



▲ 국립대전현충원 유튜브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한 국립대전현충원은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며,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주행사를 진행했다.

추모 연주행사는 3월 17일 15시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묵념곡이 울리는 가운데 헌화를 하고, 의전단이 부르는 '천안함가'와 '꽃 피는 날' 등으로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15시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서 묵념곡이 흐르는 가운데 헌화를 하고, '연평해전 OST(영결식)' 등의 연주와 듀엣으로 부르는 '배웅'으로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 추모 행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 01** 천안함 46용사 묘역
- 02** 한주호 준위 묘소
- 03**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 04**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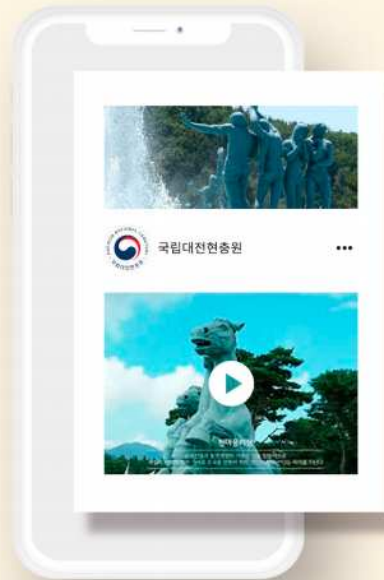


# 유튜브로 보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YouTube

국립대전현충원



01

## 비문 읽는 시간

EP.02 황병길 애국지사 편  
EP.03 장낙수 애국지사 편



묘역의 비문을 통해  
안장자의 삶과 그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국립대전현충원  
#비문읽는시간  
#황병길애국지사  
#장낙수애국지사



02

## 국립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 날」

국립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 날」  
추모 연주회\_목념곡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는  
국립대전현충원 의전단  
연주영상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날  
#의전단연주



03

## 국립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의 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만나는 서해수호 55용사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서해수호 55용사를 만나봅시다.

#국립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날  
#서해수호55용사



## 대전현충원을 찾아서

전남 목포 덕인고등학교  
3학년 5반 전대진

국토의 중심 대전에 자리잡은  
대전현충원에서  
나라 위해 살다간 사람들  
자랑스런 그 이름을  
다시 만난다.

피 끓는 젊음 바친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  
그 빛을 찬란하게 발하는  
대전현충원에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호국영령의 이름 새겨진  
묘비 앞에서  
그분들의 살아 생전  
우리에게 보여준  
애국적 활동 떠올리며  
가슴 여민다.

나라 위해 희생한  
영령들 앞에  
감사의 묵념 하며  
내가 배우고 싶은  
나라사랑의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 마음으로 쓰는 편지

“

그리움엔 길이 없어  
— 박태일

그리움엔 길이 없어  
온 하루 재갈매기 하늘 너비를 재는 날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물소리 감고  
홀로 주저앉은 독길 한끝.

”

오늘따라 당신이 연주하던 색소폰  
'가고파'의 선율이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난 1년을  
그리움 속에서 많이 아파했지만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먼저 간 전국에서  
우리 가족 보살펴 주신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일,  
마음 아픈 일도 겪었지만 가족이 곁에  
있어 항상 든든하고 어려운 일도 곳곳  
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새삼  
느끼는 것은 참으로 당신이 생전에 잘  
사셨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친구분들  
이나 제자분들 또 지인분들께서 당신이  
없는 빈자리를 참 많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며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위로해 주었지요.

지난 1월에는 당신의 형님도 당신 뒤를  
따라가셨는데 만나셨는지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슬펍습니다. 다행히 아주버님 묘소도  
당신 곁에 있어 현충원에 가게 되면 뵈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똑똑한 계연이가  
박사 과정을 5과목 A플러스로 통과했어요.  
당신이 살아 계셨으면 제일 좋아하셨을  
텐데요. 논문을 써야 하는데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잘 해내리라 여겨  
집니다. 그리고 귀염둥이 천사 윤슬이는  
코로나로 학교에 몇 번 등교하지도 못했  
는데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마시멜로를 주머니에서 꺼내 주던 할아버지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며, 할아버지 보고  
싶다며 가끔씩 울먹이는 윤슬이를 보며  
저도 함께 눈물짓지요.

지난해 사위 상필이는 육아 휴직으로  
6개월간 윤슬이 돌보며 수고가 많았지요.

그덕에 윤슬이는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독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수연이의 스튜디오도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이제 제법  
사업의 테두리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기쁨을 함께할 당신이 곁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허전한 마음 가득합니다.




코로나 풀리면 따스한 봄날 현충원으로  
만나러 갈게요, 그럼 그때까지 형님과 함께  
잘 지내시길 바래요.

당신의 각시 올림

연중 누구나 자유롭게 참배하고  
나라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보훈의 성지

---



-  **웹진**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  **영상** 국립대전현충원 유튜브
-  **카드뉴스** 국립대전현충원 페이스북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 ① ‘기획’ 코너 | 참배·안장의식, 보훈정책 등 소개
- ② ‘공모전 입상작’ 코너 | 나라사랑 체험소감문, 사진 공모전 등 소개
- ③ ‘그리움 담아’ 코너 | 유가족·참배객들의 마음으로 쓰는 편지 소개



국립대전현충원

3415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Tel 042.820.7061~5 Fax 042.822.2503 Web [www.dnc.go.kr](http://www.dnc.go.kr)